싱가포르 국민영웅, 퇴역 후 출가

땐진 다쫌 스님 "더 많은 사람 도와 행복"

박영빈 객원기자

32년간 싱가포르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엘리트 장교가 제대 후 곧바로 스님이 됐다. 뉴스의 주인공은 땐진 다쫌(Tenzin Dratsom, 55) 스님. 그러나 아직 싱가포르에선 속명인 프레드 청(Fred Cheong) 대령으로 유명하다. 지난 3월 3일, '채널 뉴스 아시아'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흥미로운 뉴스를 특집 보도했다.

스님은 1982년 장교생도로 군문에 들어섰다. 1989년엔 혹독하기로 유명한 미국 해군특수부대 네이비 실 코스를 통과하고, 1991년에는 납치된 싱가포르 항공 117편의 승객구출 작전을 사망자 없이 성공시키면서 싱가포르군의 영웅이 됐다. 이후 32년간 싱가포르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최종적으론 육군사관학교의 부총장을 지냈다.

스님은 2013년 9월에 제대해, 그 달에 바로 달라이라마를 계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나에게 있어 출가는 정신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며 출가를 결심한 계기를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군문의 경력을 생각해 '땐진 다쫌'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티베트어로 '다(dra)'는 망상 · 적군을 뜻하고, '쫌(tsom)'은 파괴자를 뜻한다. 군대에서 외부의 적을 파괴했으니, 이제는 내부의 적을 파괴하라는 뜻"이라고 자신의 법명을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10대 이후로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군인이었을 때도 매일 새벽 4시에 막사를 떠나기 전에 절에 들러 예불을 올리고 출근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스님은 "출가자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고 말하며 "불교는 내 힘의 근원이다. 내가 출가를 결정했을 때, 군의 동료들 중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32년 장교로 특수부대 복무
육군사관학교 부총장도 지내
어려서부터 신행활동 이어와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싱가포르 육군사관학교 부총장 시절의 모습(사진 왼쪽)과 출가한 후의 모습(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채널 뉴스 아시아

스님은 "출가자의 목적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지도했던 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나며, 특히 사관후보생들의 부모들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고 있다.

스님은 군생활을 회고하며 "출가자와 군인은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적군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가자에게 적군은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이라며 웃어 보였다.

스님은 출가 후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항상 가사를 입고 다니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응했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첫 번째 안거를 지낼 때, 홀로 명상하는 것이 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보낸 3주간의 수행에 대해 "밤중에 느껴지는 달빛, 눈, 차가운 공기와 상쾌한 마음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켰다. 이는 아주 놀라운 감정"이라며 안거수행의 훌륭함을 설명했다.

현재 스님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자신의 본사인 남인도의 쎄라제(Sera Je) 사원의 어린 스님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외에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중국, 스위스, 호주 등 해외 여러 나라에 명상과 안거를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나의 삶과 선택에 어떠한 후회도 없다.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나의 나라를 위해 오직 한 목숨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다시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인 부부의 日 천태종 기여

페촐트 부부, 근대역사 속 일본불교 귀인 평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성지로 꼽히는 히에이산(比叡山) 중턱에 독일인 부부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근대 불교학과 음악계에 각각 공헌한 독일인 페촐트 부부의 이야기를 지난 3월 3일 일본의 '츄니치 일보'가 보도했다.

1873년 독일에서 태어난 브루노 페촐트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전공한 후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중국에서 근무했다. 1910년 일본으로 파견지가 변경된 후 1917년부터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에서 독일어 강사로 근무했다. 이때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가수였던 아내 앙카 페촐트도 함께 일본으로 와 도쿄음악학교(현 도쿄예술대)에서 성악강사로 근무했다.

브루노 페촐트는 일본에 머무르며 학생들과 함께 사찰의 예불이나 신사의 제례에 참가한 인연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후 신도, 선종, 정토종, 진언종 등의 교학을 연구했다. 특히 대승불교와 천태종의 교학에 심취해 1만권 이상의 불교서적과 예술품을 수집했다.

브루노는 괴테의 자연관과 대승불교와의 공통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천태종의 교학을 독일어로 번역해 최초로 유럽에 소개했다. 또 일본불교의 특징을 분석한 저작을 다수 남겼다. 브루노의 저작들은 일본불교학의 근대적인 기틀을 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루노는 살아생전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외국인이자 재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태종으로부터 승정(僧正, 한국의 종사법계) 법계를 받았다. 당시 보수적인 일본불교계에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히에이산 기슭에 자리잡은 페촐트 부부의 묘. 사진출처=위키피디아

1937년 아내인 앙카가 사망하면서 "히에이산에 묻어 달라"는 유언에 따라 히에이산 중턱에 묘가 세워졌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홀로 불교학 연구를 이어가던 브루노도 1949년 사망하면서 이곳에 합장됐다.

페촐트 부부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기념회는 부부의 기일에 맞춰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난민 피난처' 거듭난 日 선종 사찰

도쿠린지 다카오카 스님
난민 게스트하우스 운영

일본 선불교 슈초 다카오카 스님(Shucho Takaoka)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연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안다. 이러한 통찰로써, 그는 나고야시에 위치한 도쿠린지(Tokurin-ji) 사찰을 이방인 및 실향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탈바꿈시켰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는 3월 6일 일본 선종 3파 중 하나인 조동종(曹洞宗) 소속 사찰인 도쿠린지를 소개했다. 도쿠린지는 국내외 전쟁 피난민이나 난민, 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가정 청소년 등에게 임시피난처를 제공한다. 또한 한마음을 가진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센터로서 역할도 한다.

다카오카 스님은 "몇몇 사람들은 우리 사원을 '카케코미데라(kakekomidera)'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카케코미데라는 에도시대(1603~1868) 가정 폭력 또는 강제 결혼에서 도망친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던 신중절(비구니들이 사는 절)이다.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2013년 지역 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지은 도쿠린지의 샨티쿠티 공사 모습. 사진출처=재팬타임즈

다카오카 스님이 도쿠린지를 약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만든 것은 자신이 이방인일 때 느꼈던 고충 때문이다. 스님은 26세 때 일본 사회에 환멸을 느껴 네팔로 향했다. 당시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설사와 고열 등에 시달리던 그를 현지 주민들이 품어줬다.

다카오카 스님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나를 '불쌍히' 여긴 주민들이 내게 무료 숙박을 제공했다. 이후 나는 10년간 네팔에 머무르며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보존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일본에 돌아온 후 1985년 다카오카 스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쿠린지 사찰을 맡았다. 스님은 그때부터 이방인과 실향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일종의 '게스트하우스'를 사찰 뒷편에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화의 집'이란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샨티쿠티(Shantikuti)라는 이름을 지었다.

샨티쿠티는 태양열 ·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샨티쿠티가 후대에게 '퍼머컬처(Perma culture)'와 지속가능한 삶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남길 바라는 스님의 뜻이다.

이방인과 실향민들을 위해 지어진 공간은 지금 난민을 지원하는 사회적 단체로 거듭났다. 난민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돕기도 한다고. 특히 스님은 해당 공간이 불자들의 자발적 힘으로 지어진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겼지만, 실제 공사는 대부분 자원 봉사자들의 손으로 일궜다. 심지어 아이들도 흙벽을 함께 쌓으며 도왔다"며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타인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타임지 표지 장식

망명 60주년, 티베트 '윤회 제도' 폐지 의사 피력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84)가 미국 최대 시사 주간지 타임(TIME)지 표지를 장식했다. 망명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 제도 폐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달라이 라마는 60년 전인 1959년과 2008년에 타임지 표지에 실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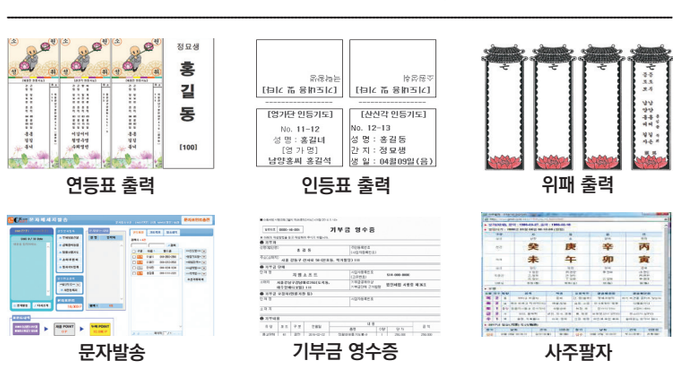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84)가 미국 최대 시사 주간지 타임(TIME) 표지를 장식했다.

3월 7일(현지시각)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무신론자인 중국 공산당 정부가 15대 달라이 라마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600만 티베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달라이 라마 제도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만둘 것이다. (폐지가)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달라이 라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끝으로 티베트 불교의 '윤회 제도'를 끝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중국은 당 기관지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달라이 라마를 즉각 저격하고 나섰다. 서장일보는 칼럼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계급 · 사상 · 조직의 뿌리"라고 비난하는 한편, 달라이 라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달라이 라마를 향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GM 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천년의 묘해
3일만에 깨치는 야포禪

국판 218쪽
석호 지음
12,000원
철저하게 친절한
깨달음으로의 안내
부디 실행하라
그대 탄생의 이유
완전한 존재가 된다.
홀연히 섬으로 간 스님, 뭘 하시나 했더니 법어를 낚고 계셨네요.
– 제자 광목심 장윤정
❋ 이 책은 깨달음의 세계화 · 나눔을 실천하라는 저자 석호스님의 뜻에 따라 5권 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5권 묶음판매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배 부르니 당신께 내 밥
덜어드릴 수 있어 좋지요.
주는 게 복이니까
깨달음의 선물, 선물하세요.
선물하고 또 선물하면
당신 마음의 키는 쑥 커집니다.
커진 만큼 넉넉해지고
커진 만큼 평온해지므로
배부른 이 권유는
당신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지도에서 석호 물처럼
모든 게 변한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줄 수 있을 때 줘라.
❋ 석호스님 법문초청을 원하는 사찰이나 단체는 20일 전에 예약해 주십시오.
5권 정가 : 60,000원 → 공급가 : 54,000원 (배송무료)
주문처 : 도서출판 연 화 ☎ 010-9377-1923
주문송금계좌 : <농협> 703-01-384100 (지차연)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